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에 관한 연구

The Provider-Role Consciousness of Married Working Women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부설 생활과학연구소

조 교 : 裴 希 粉

Research Institute of Science

for Better Liv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 Hee Boon Bac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부교수 : 玉 先 花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 Sun Wha Ok

목 차

I. 序 論

II. 獨立變數 選定의 理論的 背景

III. 研究問題 및 研究方法

IV. 結果 및 解釋

V. 論 議

參考文獻

= ABSTRACT =

The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present state of the provider-role consciousness of married working women in Korea and to identify five variable-clusters which were drawn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73 married working women whose husbands also had their work. The statistical methods adopted for data analyses were frequencies, oneway ANOVA, Scheffé-test,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level of the provider-role consciousness of married working women was slightly high.

2) As for the aspects of the individual attribute variables, educational level, job, income, age, native area, motive of work, and sex-role identity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provider-role consciousness of married working women.

3) Concerning the family background variables, marriage duration, number of children, mother's experience of employment, father's educational level, and husband's income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provider-role consciousness of married working women.

4) As for the social relationship variables, degree of participation in social associations, significant others' attitudes toward housewife's work, degree of domestic role sharing with husband, and wife/husband income ratio significantly affected the provider-role conscious-

ness of married working women.

Based on these findings, it came to be revealed that multidirectional perspectives were useful to identify variables which could predict the provider-role consciousness of married working women. Also, it was revealed that the significant others' approvals for women's work were necessary to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der-role consciousness of married working women.

I. 서 론

과거 어느 시기로부터인지 남녀에게 각기 다른 역할 기대가 존재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즉, 남성에게는 가족을 扶養하고 그 가족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책임이, 그리고, 여성에게는 자녀를 낳아 기르고 가사일을 돌보는 책임이 각각 주어져 왔던 것이다. 그런데, 남성 고유의 역할로서의 扶養者役割의 시대는 이제 서서히 그 절정기를 지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산업 구조의 변화로 여성의 노동 참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남녀 간 역할 분리의 정도가 점진적으로 약화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만을 扶養者로 보는 관점의 약화 속도는 다른 사회보다 완만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家長, 家父長이라는 전통적 의식 위에 특정화된 남성 역할로서의 扶養者役割이 상승 작용을 일으켜 남성 扶養者役割의 궤적이 더욱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남성 扶養者役割에 대한 인식으로 인하여 부부가 함께 가족을 부양하는 맞벌이 부부의 가정에서조차도 가족의 扶養者役割은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지각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1990년도에 노동부가 보고한 취업현황을 살펴 보면 전체 취업자 중 여성의 비율이 40.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기혼여성의 비율은 75.5%에 이르고 있다(노동부, 199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내외 연구 결과들(김효숙, 1988; 류시중, 1970; 옥선화, 1980; 최외선, 류향기, 1985; 한남제, 1972; Ferree, 1990; Haas, 1986; Hood, 1986; Statham & Larrick, 1986)이 아직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主所得者, 生計費 擔當者, 경제적 수입

원으로서 남편을 꺾으며, 취업 주부 자신을 共同 扶養者로 인식하기 보다는 단지 '보조자'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임을 밝힌 바 있다.

여성 경제 참여율의 급격한 증가 속도만큼 扶養者役割의 공유 의식이 성장하지 못하여 생기는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 커다란 괴리를 형성 함으로써 취업 여성들의 갈등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크다. 자신의 직업 활동과 가정이 라는 두 세계를 연결시켜 줄 튼튼한 다리로서의 扶養者役割에 대한 승인을 스스로에게서나 타인에게서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게 되면 취업주부들은 가정 내 권력이나 역할 분담에 있어서 자신의 경제적 기여도를 반영해 내지 못하게 된다(Ericksen, Yancey & Ericksen, 1979).

한편, 현상을 규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적 도구로서의 理論的 接近法은 일찍부터 사회과학 일반에서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가족학 내에서도 1950년대 이래 理論的 接近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하여 交換理論 및 보다 상세화된 交換理論의 새로운 형태들이 여성 취업이라는 현상을 광범위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경험적 연구의 업적을 고찰하여 볼 때, 바야흐로 우리나라에서도 理論的 接近의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서구식의 交換理論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거나, 학문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理論的 接近이 힘들어 변수 간 관계 파악에만 초점을 두는 평면적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의 초점인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현상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이론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기에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족학 이론으로 이미

자리를 굳히고 있는 대표적 이론들의 관점을 빌어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社會人口學的 變數 중 취업주부의 個人的 特性을 나타내는 變數와 家族背景을 나타내는 變數, 그리고 이들 이외에 여성의 취업에 따른 가족 역할구조 개편과 관련될 것으로 보이는 몇몇 社會的 關係를 나타내는 變數와 職務關聯變數 등 여러 關聯變數들에 따라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핍으로써 가장 영향력 있는 變數를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상의 관련변수들을 대표적인 가족학 理論인 構造機能論, 資源論, 發達論, 象徵的相互作用論, 體系論의 觀點 등에 따라 분류해 보고, 어떠한 理論的 觀點이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을 설명하는 데 유용할 것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獨立變數 選定の 理論的 背景

본 章에서는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과 관련될 것으로 보이는 變數들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構造機能論, 資源論, 發達論, 象徵的相互作用論, 體系論의 觀點에서 각각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構造機能論的 觀點

構造機能論者들은 체계의 구성 요소들이 그 체계의 지속적인 작동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보며, 전체로서의 체계 뿐 아니라 체계의 각 부분은 균형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균형을 깨는 변화나 변화의 과정을 그들의 이론적 틀 내에 두지 않는다(최재현, 1989). 構造機能論의 주요 이론가인 Parsons는 가족 체계의 균형과 안정성을 위해 부부 간의 性役割 分化가 필수적이며 기능적이라고 주장하였다(Skolnick, 1987에서 재인용). 그에 따르면, 表現的 役割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이 취업하는 경우, 남편이 수행해야 할 道具的 役割 내에서 긴장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결혼의 안정성이 유지되려면 여성이 취업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남편과 地位 競爭의 이치 않은 낮은 지위의 직업을 갖든지 하여 여성이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Oppenheimer, 1977).

아직도 이와 같은 Parsons식의 사고 방식이 뿌리 깊은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이 취업을 하더라도 남편에게 “소홀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써 주어야” 하고, “남편에게 우선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조혜정, 1988)할 정도이므로 扶養者役割意識이 동등하게 공유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볼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과 관련하여 볼 때, 성별 역할분리가 더 기능적이라고 믿고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은 낮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개인이 얼마나 성유형화된(sex-typed)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역할특성과 실제적인 성별역할분리의 정도를 보여주는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의 부부 공유 정도를 變數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1) 성역할특성

선행연구들은 취업여성의 성역할태도가 성유형화 되어있지 않고 근대적일수록 직업적 성취가 높고 (Hanson, 1983; Smith-lovin & Tickamyer, 1978), 남편과의 가정내 역할의 공유 정도도 높으며(Bird & Bird, 1984), 扶養者役割에 대한 책임의식도 높다 (Statham & Larrick, 1986)고 주장하였다. 변화하는 환경과 세계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적응이라는 觀點에서 볼 때 어느 한 성별의 전통적인 특성에 얽매이기 보다 양자의 특성을 모두 소유하는 양성적 특성이 적응력에 있어 우세하다(윤진, 1985)는 선행연구의 觀點을 받아들여 양성적 성역할특성이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의 부부 공유정도

Statham과 Larrick(1986)은 여성이 취업할 경우 가사노동 담당자로서의 의무가 새로이 협상되어야만 비로서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노동 시장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扶養者役割 책임의 공유는 가사노동 책임의 공유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연구 결과, 부부간의

가사노동 책임의 공유 정도는 취업주부의 扶養者責任意識을 설명하는 매우 영향력 있는 변수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를 연구한 국내의 결과는 거의 없다.

2. 資源論的 觀點

자원은 인간에게 더 작은 비용과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하게 해주며 권력을 창출하여 준다. 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덜 가진 사람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데, 시장 경제 내에서 권력을 창출하는 자원으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바로 교육, 직업적 위세, 그리고, 수입이다(Haas, 1981; Perrucci, Potter & Rhods, 1978). 이 觀點에 따르면, 취업 주부들이 실제로 扶養者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共同 扶養者로 인식하지 않는 것은 가족 부양에 사용될 수 있는 資源의 양이 남편에게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가족 부양을 위해 외부에서 획득하는 資源, 즉, 직업적 지위나 수입등이 남편에게 더 많다는 것은 단지 여성 개인의 능력부족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다분히 構造的인 문제이다. 즉, 여성이 직종이나 수입면에서 남성과 분리되어 보다 더 열악한 就業構造 下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저임금과 낮은 지위의 직종은 상대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資源의 양을 떨어뜨리고 자연히 자신의 부양 행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共同 扶養者로 인식하기 보다는 補助者 정도로 여기게 하는데 주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가족부양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취업주부의 교육수준, 직업, 수입과 남편의 교육수준, 직업, 수입, 그리고 이들 자원의 부부 간 차이를 독립변수로 채택하고자 한다.

1) 취업주부의 교육수준, 직업 및 수입

교육은 전통성에 의문을 갖게 해 주고 혁신적인 생활방식을 가지게 해 준다(Haas, 1981). 또한 교육은 고용주에게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능력을 창출해 주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임금수준을 높여주기도 한다(Rallings & Nye, 1979).

Haas(1981)는 취업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 간의 가족 역할 공유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고, Nye(1979)는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일수록 남편이 전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을 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은 높다(옥선화, 1982)는 결과와 가족 扶養者役割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최외선, 류향기, 1985; 최재석, 1971)는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Yogev(1981)는 전문직 여성들의 결혼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전문직 여성들은 '직업적 성공', '지적인 능력', '일을 처리하는 능력' 등에 있어서 자신과 남편은 동등하다고 지각하여 평등주의적인 모델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은 결과는 취업주부의 직업에 따라서 공동적이고 평등적인 扶養者役割意識 획득에 차이가 발견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취업주부의 수입이 많을수록 부부간의 가족 역할 공유 정도가 높아진다는 여러 선행연구들(Bird, et al., 1984; Blood & Wolfe, 1960; Nickols & Metzen, 1978)의 결과는 취업주부의 수입이 扶養者役割意識의 변량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국내의 연구들은 취업주부의 수입이 가족 내 扶養者役割 구조에 독립적인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최외선, 류향기, 1985; 최재석, 1971)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를 통해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2) 남편의 교육수준, 직업 및 수입

Haas(1981)는 남편의 교육수준과 부부간 가족 역할 공유 정도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Ericksen과 동료들(1979)은 남편의 수입이 적을수록 부부간의 가족 역할 공유 정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여성의 직업적 지위를 남편의 직업과 상관하여 연구한 Thompson과 Walker(1989)의 연구 결과, 전문직 남편을 둔 아내들은 임시직이나 시간제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자원변수가 부부 간의 역할 공유 및 扶養

者役割意識 공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남편의 교육수준이나 수입, 그 가족이 속한 사회 계층이나 생활수준이 扶養者役割 체계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최외선, 류향기, 1985; 최재석, 1971)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資源論的 觀點이 적용되는데 있어서 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3) 부부 간의 교육수준, 직업위세 및 수입의 차이

자원이론이 다루는 자원에는 각자가 가진 絶對的 資源뿐만 아니라 양자 간의 자원을 비교한 相對的 資源도 포함된다. Spitze(1988)는 부부 간의 권력을 연구할 때 남편과 부인이 가진 자원, 즉, 교육수준, 직업, 수입의 상대적 크기를 살피는 것이 유용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실제로 많은 연구를 통해 상대적 자원 개념의 중요성이 밝혀졌다(Models, 1981; Ross, 1987). 그러나, 국내의 연구 중에서는 부부 간의 상대적 자원을 독립변수로 선정한 선행연구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3. 發達論的 觀點

發達論的 觀點에서 볼 때, 가족은 발달적 과정을 거치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의 일환으로 역할체계의 변화를 겪게 되리라고 볼 수 있다. Haas(1981)는 그의 문헌 고찰을 통해 가족 생활 주기 상의 초기일수록 부부간 역할 분화의 정도가 미약하다가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성역할 분리 정도가 커진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한편, 결혼 전의 동거 커플과 결혼 후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동거 커플의 역할 공유 정도가 더 높았다(Stafford & Backman, 1977)는 보고도 있었다. 이는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한 기간이 짧을수록 역할의 공유 정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가족의 발달정도과 부부 역할공유 정도 간의 관계를 직선적인 관계로 보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곡선적인 관계로 보는 학자도 있으므로 發達論的 견해를 가진 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변수인 결혼지속년수와 자녀의 수, 그리고, 막내 자녀의 연령을 독립변수로 채택하여 가족의 발달에 따라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결혼지속년수

Blood와 Wolfe(1960; 김효숙, 1988에서 재인용)의 연구에 의하면 신혼기의 부부는 다른 생활단계의 부부에 비해서 가사분담이 협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자녀들의 출산과 더불어 역할분화가 증가되다가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하게 되면 다시 역할수행이 원만해진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장혜영(1981)이 다른 가족단계에 비하여 신혼기에 부부 간 역할의 공동 수행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결혼지속년수와 扶養者役割 구조 간에는 유의한 관련이 없다(최외선, 류향기, 1985; 최재석, 1971)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2) 자녀의 수

자녀의 수가 많아진다는 사실은 취업주부에게 여러가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Nye(1979)는 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남편이나 친족 및 이웃으로부터 오는 주부의 취업에 대한 반대가 커질 것이며, 취업주부 자신이 느끼는 가족에 대한 죄책감도 커질 것이라는 명제를 제시하였다. 실제로 Statham과 Larrick(1986)은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취업주부의 가족 부양의식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자녀의 수가 취업주부의 직업적 역할에 대한 애착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Hanson, 1983)는 주장도 있으므로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3) 막내자녀의 연령

자녀가 어릴수록 여성은 그 아이를 돌보는 데에서 더 큰 만족을 얻게 되며 따라서 자녀를 떠나 직업에 헌신하는 데 장벽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어릴수록 취업에 대한 남편 및 친족, 이웃으로부터의 제재도 커지고 취업주부 스스로 더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Nye, 1979)는 선행연구도 있으므로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4. 象徵的相互作用論的 觀點

象徵的相互作用論자들은 인간은 상징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많은 의미와 가치를 학습하며 여기서 지위, 역할, 규범 등의 개념이 발생한다고 본다(Burr, Leigh & Constantine, 1979).

相互論的 觀點에서의 사회화는 構造機能論的 立場과는 매우 다르다. 構造機能論的 觀點에서의 사회화는 보수적인 체계의 통합과정 중 일부이며 행위자들을 수동적 존재로 인식하지만, 상호론적 觀點의 사회화는 역할 창조(role making)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다(Stryker, 1980; 최재현, 1987에서 재인용). 이 觀點에 따르면, 인간은 단순히 역할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화를 통해 자신의 역할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방향을 첨가시킨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사회화 관련 변수로서 자주 언급되는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경험 유무, 부모의 교육수준, 연령, 출신지역, 그리고, 사회적 모임에 대한 참여 정도 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본다.

한편, 여성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가지는 인식은 사회의 전반적 태도, 준거집단의 태도, 의미있는 타자들의 태도 등을 반영하게 된다(Rallings & Nye, 1979). 특히 남편이나 자녀들,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와 같은 친밀하고 일차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긍정적일 때는 역할기대나 역할인 지면에서 안정감과 기여감을 느낄 수 있으나, 그들의 태도가 부정적일 때는 이를 역할에 대한 제재로 받아들여 역할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끝으로,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象徵的相互作用論的 觀點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개념은 '의미'와 '가치'의 개념이다. 같은 현상이라도 거기에 부여하는 개개인의 의미와 가치가 다르면 현상이 미치는 효과도 달라진다(Burr et al., 1979). 따라서 취업주부가 자신의 직업을 당연한 인간의 권리로 보는가 아니면 경제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는가,

가족에 대한 공헌으로 보는가 아니면 비용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扶養者役割意識은 달라질 것으로 본다.

1) 교육수준

취업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이 가족을 부양한다는 의식, 생계비 담당자라는 의식이 더 높아진다(김효숙, 1988; 옥선화, 1982; Nye, 1979; Statham & Larrick, 1986)는 결과가 여러 연구들로부터 주장되어진 바 있다. 반면, 최외선과 류향기(1985)는 교육수준이 생계비 담당자로 남편을 지목하는 정도를 낮추는 데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2) 어머니의 취업경험 유무

취업경험이 있는 어머니를 둔 딸은 여성이 가정에만 묶인 존재라는 생각을 덜 가지고 여성을 외부 세계에서 보다 활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Hartley, 1960). 또한 이들은 보다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며(Hoffman, 1974), 전통적인 여성성 점수가 낮고, 여성을 유능하고 효율적인 존재로 보고, 자신이 어머니가 되었을 때 취업하기를 더 많이 원한다(Rallings & Nye, 1979; Rosenfeld, 1978)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아직 국내 연구 중 이 변수의 효과가 밝혀진 것은 거의 없다.

3) 부모의 교육수준

선행연구 결과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의 자녀들이 낮은 부모의 자녀들보다 남녀의 역할분리에 대해 근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Haas, 1981; Hanson, 1983)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 세대의 역할체계를 예측하는 주요 변수임을 시사한다.

4) 연령

젊은 사람일수록 그들 삶의 많은 기간동안 학교나 매체를 통해서 보급되는 평등적 역할 모델의 잇점에 대한 교육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Haas, 1981) 연령이 낮을수록 남녀 간의 역할분리에 대한 태도가 근대적이라고(박태은, 1983; 이숙, 1982) 볼 수 있다. 젊을수록 부양자 책임의식이 높다(Statham & Larrick, 1986)는 주장도 있는 한편,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옥선화, 1982;

최외선, 유헤기, 1985)는 결과도 있어,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5) 출신지역

도시에서 자란 도시인인가 아니면 농촌출신인가에 따라서 개인이 사회화되는 준거집단이 달라진다. 도시와 농촌 간에는 아직도 가치와 의식면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가족에 대한 가치와 의식, 그리고 행동양식면에서 농촌 출신자와 도시 출신자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김재은, 1987; 옥선화, 1989)는 선행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6) 사회적 모임에 대한 참여 정도

사회적 모임은 일종의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서 학교와 같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못지 않은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취업여성은 사회적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얻고 성역할에 관한 최신의 논쟁에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다(Haas, 1981). 따라서, 이 변수의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7) 의미있는 타자들의 취업에 대한 태도

역할은 관련되는 사람들이 서로서에게 이름을 붙이고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기대를 유발시킴으로써 비로서 발생한다(Stryker, 1980; 최재현, 1987에서 재인용). 따라서, 취업주부가 부양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획득, 혹은 창조하는 데는 자신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친밀한 사람들로부터 역할에 맞는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선행연구들은 특별히 남편의 지지 정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아내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는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을 증대 혹은 감소시킬 수 있다(임정빈, 정혜정, 1986)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8) 취업동기

Thompson과 Walker(1989)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 일하는 노동계층 취업주부의 남편들이 아내를 공동 부양자로 인식하는 반면, 중류층의 취업주부들은 자신의 취업을 자아를 실현하고 단조로운 집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동기 부여하기 때문에 자신을 이차적 부양자로 보게 된다

(Thompson & Walker, 1989)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5. 體系論的 觀點

體系論的 觀點에서 볼 때 가족은, 몇가지 하위 체계와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하위체계가 환경과 함께 활발히 상호작용하면서 기능하는 일종의 반개방적인 체계이다(정민자, 1990). 누가 가족체계 내에 있고 누가 가족체계 바깥에 있는가에 관한 경계의 모호성이 커지면 가족과 개인의 역기능도 커진다(Boss, 1980).

취업주부의 가족이 겪게 되는 경계에 대한 문제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연구는 Pleck(1977)의 가족역할 체계 연구이다. 그는 스스로가 이름붙인 '직업-가족 역할체계' 속에 여성의 직업 역할, 남성의 직업 역할, 여성의 가족 역할, 남성의 가족 역할 등 4가지 하위체계를 포함시켰다. 그는 여성의 취업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부부 간에 가사노동 및 부양자 역할에 대한 공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가족 노동과 직업 노동 간에 존재하는 '비대칭적으로 침투하는 경계'로써 설명하였다. 즉, 여성의 경우 직업 역할이 가족 역할을 침투하는 정도보다 가족 역할이 직업 역할을 침투하는 정도가 커서 비상시 둘 주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가족에 우선권이 주어지기 쉽지만, 남성의 경우 침투성이 비대칭적이긴 여성과 마찬가지로 그 침투의 방향에 있어 가족역할에 대한 직업 역할의 침투성이 더 강하다고 보았다.

體系論的 觀點에서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 지체를 설명하는 개념인 경계 모호성은 취업주부의 근무시간, 근무시간의 융통성, 근무장소 등을 측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1) 근무시간

스웨덴처럼 여성의 취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가 굳건한 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정과 직업을 양립하기 위해 전업제 취업 보다는 시간제 취업을 선택하여 가정을 돌볼 시간을 마련한다(Haas, 1981)는 연구결과는 근무시간변수에 따라서도 가족과 직업 간의 경계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근무시간의 융통성

근무시간 중에 개인의 사적인 일을 위해 얼마나 자유롭게 시간을 낼 수 있는가는 취업주부의 직업역할 하위체계의 경계형태를 보여준다.

3) 근무장소

근무시간과 근무시간의 융통성이 가정과 직업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반면에, 취업주부가 하는 일이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사무실 등의 작업장소로 직업 이동하여 수행하는 일인지는 공간적 경계를 파악하게 해준다.

III. 研究 問題 및 研究 方法

1. 研究 問題

〈研究問題 1〉 취업 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은 전반적으로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研究問題 2〉 취업 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은 個人的 特性 變數들(교육수준, 직업, 수입, 연령, 출신지역, 취업동기, 성역할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研究問題 3〉 취업 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은 家族背景 變數들(결혼지속년수, 자녀의 수, 막내자녀의 연령, 어머니의 취업경험 유무, 부모의 교육수준, 남편의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 남편의 수입)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研究問題 4〉 취업 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은 社會的 關係 變數들(사회적 모임에 대한 참여 정도, 의미있는 타자들의 취업에 대한 태도, 남편과의 가사노동 공유정도, 남편과의 교육수준·직업위세·수입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研究問題 5〉 취업 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은 職務關聯 變數들(근무시간, 근무시간의 융통성, 근무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研究問題 6〉 취업 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을 설명하는 變數들은 각각 어떠한 理論的 觀點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들 變數 및 理論的 觀點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研究 方法

1) 調査對象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취업주부로서 남편도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부부가 함께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한 573명의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을 보면, 평균연령 36.1세로서 20대가 21.9%, 30대가 46.1%, 40대가 26.4%, 50대가 5.6%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15.3%, 고졸이 27.3%, 초대졸 및 대졸이 46.3%, 대학원 이상이 11.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다. 수입면에서 보면, 30만원 이하가 21.2%, 31만원에서 70만원이 42.2%, 71만원에서 100만원이 27.8%, 101만원 이상이 8.9%로 나타났으며, 직업면에서는 전문·관리직이 7%,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이 58.1%, 판매 및 서어비스직이 35%로 나타났다.

2) 測定道具의 作成

(1) 扶養者役割意識 척도

부양자 역할을 하나의 변수로서 독립적으로 측정하는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 Hood(1986)는 부양자 역할에 대한 직접적인 척도 개발의 실패와 존재하는 척도들을 개념화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척도개발을 위한 몇 가지 제안점들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제안점들을 바탕으로 하여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을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책임의식과 실제 수행을 묻는 문항 5개, 여성 취업에 관한 전통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태도를 묻는 4개의 문항, 扶養者役割에 부여하는 중요도를 측정하는 문항 5개, 자신의 직업역할에 부여하는 중요도를 묻는 문항 5개, 마지막으로 자신의 수입이 가정경제에 기여하는 정도에 관한 문항 6개 등 총 25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를 작성하였다. 응답은 각 문항내용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1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扶養者役割意識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 α 는 .85로 신뢰할만한 수준을 보였다.

(2) 성역할특성 척도

성역할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Bem의 성역할 측정도구의 축약성(Short Form Bem Sex-Role Inventory)을 정옥분(1986)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남성성척도의 신뢰도 계수 α 값은 .84이었고 여성성척도의 α 값은 .87였다.

(3)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의 부부 공유 정도 측정 문항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의 부부 공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선행연구(옥선화, 1982; 최재석, 1971; Bird, et al., 1984; Ericksen, et al., 1979; Haas, 1981)를 토대로 하여 설거지, 청소, 음식 만들기, 빨래, 시장보기 및 물건 사기, 주택 손질 및 수리, 아이들의 일상생활 돌보기,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아이들 돌보기 등 8개의 문항에 대한 공유정도를 물어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 α 는 .75이었다.

(4) 사회적 모임에 대한 참여 정도 측정 문항

취업주부의 사회적 모임에 대한 참여 정도 척도는 김영신(1991)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구성하였는데, 개인적 모임과 사회단체, 그리고 교양강좌나 특강에 대한 참여 정도를 물어 일년 평균 참여 횟수를 산출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 α 는 .60이었다.

(5) 의미있는 타자들의 취업에 대한 태도 측정 문항

남편과 자녀,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찬반 정도를 측정하여 '매우 반대한다'에 1점을 주고 '대단히 찬성한다'에 5점을 주어 합산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 α 는 .74로 나타났다.

(6) 근무시간의 융통성 측정 문항

근무시간의 융통성 척도는 Pleck, Stains, 그리고 Lang(1980)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시간을 낼 수 있는 정도와 출퇴근 시간의 융통성을 알아보는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은 그 자유로운 정도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를 주었으며,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 α 는 .82였다.

3) 資料蒐集 方法 및 分析 方法

조사는 1991년 10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800부의 질문지를 유의표집에 의하여 배포하였고, 부실기재된 자료를 제외하고 총 573부(71.8%)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각 변수에 따라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 t검증 및 Scheffé 검증을 이용하였으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의 상대적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結果 및 解釋

1.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의 전반적 경향

扶養者役割意識의 전체 평균은 80.67점(점수범위: 25~125점)이었고 척도상의 중간값인 75점 이하의 점수를 나타낸 응답자는 31.9%, 75점 초과인 응답자는 68.1%로 나타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5가지 하위영역별 평균점수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의 취업에 관한 전통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태도' 영역에서만 척도상의 중간값인 12점보다 약간 낮은 11.8점을 나타냈을 뿐, 나머지 4개의 하위영역별 평균점수는 모두 척도상의 중간값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은 전반적

표 1. 扶養者役割意識 하위영역별 문항번호와 평균점수

영역	하 위 영 역	평균(중간값)
영역 1	扶養者役割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정도	16.7(15)
영역 2	직업역할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정도	16.9(15)
영역 3	여성의 취업에 관한 전통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태도	11.8(12)
영역 4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과 실제 수행에 대한 평가	15.9(15)
영역 5	수입의 가계 기여도	18.5(18)

으로 척도상의 중간값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임으로써 가족의 扶養者, 생계비담당자, 주소득자로서의 역할을 남편에게 기대하고 대부분의 경우 자산을 보조자로 인식한다고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김효숙, 1988; 류시중, 1970; 옥선화, 1982; 최희선, 류향기, 1985; 한남제, 1972)의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이는 扶養者役割에 대한 취업주부의 의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의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고, 50대 이상의 연령을 가진 표본이 5.6%에 불과하여 연령층이 대체로 낮다는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여야만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각 변수에 따라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일원분산분석 및 t검증,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여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2에 잘 나타나 있다.

2. 個人的 特性 變數에 따른 취업주부의 扶養者 役割意識

個人的 特性 變數에 있어서, 취업주부의 扶養者 役割意識은 교육수준, 직업, 수입, 연령, 출신지역, 취업동기, 성역할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직 여성이며, 수입이 많을수록, 연령이 낮고, 농촌출신이며, 취업동기가 경제적 이유이며, 성역할특성이 양성적인 경우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은 보다 높게 나타났다.

3. 家族 背景 變數에 따른 취업주부의 扶養者 役割意識

家族 背景 變數 중에서는 결혼지속년수, 자녀의 수, 어머니의 취업경험 유무, 아버지의 교육수준, 남편의 수입 등이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 초기에 해당하고, 자녀가 없거나 적을수록, 그리고, 취업경험이 있는 母의 딸이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의 수입이 적을수록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社會的 關係 變數에 따른 취업주부의 扶養者 役割意識

가족 내외의 타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社會的 關係 變數에 있어서, 사회적 모임에 대한 참여 정도, 의미있는 타자들의 취업에 대한 태도, 남편과의 가사노동 공유 정도, 남편과의 수입의 차이 등에 따라서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은 차이를 보였다. 즉, 사회적 모임에 대한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의미있는 타자들이 주부의 취업을 지지할수록, 남편과의 가사노동 공유정도가 높을수록, 남편수입에 대한 주부의 수입의 비율이 높을수록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은 높아졌다.

5. 職務關係 變數에 따른 취업주부의 扶養者 役割意識

취업주부의 직무의 성격을 보여주는 職務關聯 變數에 있어서,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은 근무시간에 따라 달랐는데, 근무시간이 길수록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도 높아졌다.

6. 變數에 理論的 觀點別 集落化 및 相對的 影響力 考察

이상에서 살펴 본 個人的 特性 變數, 家族 背景 變數, 社會的 關係 變數, 職務關聯 變數들을 構造 機能論, 資源論, 發達論, 象徵的相互作用論, 體系論 적 관점으로 다시 한 번 集落化하여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에 관한 효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構造機能論的 觀點에서 볼 때, 성별 역할 분리가 기능적이라고 믿고 또한 이를 가정 내 역할 분담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은 낮아진다는 결과를 성역할특성, 남편과의 가사노동 공유 정도라는 변수들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둘째, 資源論的 觀點에서 볼 때, 가족 부양에 사용되는 자신의 자원, 즉 교육수준이나 직업, 수입 등의 자원이 많을수록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편의 자원

표 2. 각 변수에 따른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

변수	수	집 단 구 조	평 균	F비/t값	Scheffe
個人的 特 性 變 數	교육수준	중졸이하	80.95	10.16**	a
		고 졸	75.59		b
		초·대졸	82.00		ac
		대학원 이상	87.00		c
	직 업	전문직·관리직	94.70	27.56***	a
		사무직·전문기술직	80.44		b
		판매직·서비스직	78.23		b
	수 입	30만원 이하	69.12	32.49***	a
		31-70만원	80.75		b
		71-100만원	81.70		b
		101만원 이상	92.37		c
	연 령	20대(29세 이하)	84.57	7.89***	a
		30대(30-39세)	80.73		a
		40대(40-49세)	76.93		b
50대(50-59세)		82.31	ab		
출신지역	농촌출신	82.91	2.89***		
	도시출신	79.54			
취업동기	경제적 동기	82.18	11.42***		
	자기발전 및 여가선용	79.54			
성역활특성	양성적 집단	85.78	13.81***	a	
	남성적 집단	81.13		b	
	여성적 집단	77.83		b	
	미분화 집단	77.33		b	
家 族 背 景 變 數	결혼지속년수	3년 이하	85.20	12.80***	a
		4-9년	80.03		b
		10-19년	76.97		b
		20년 이상	80.68		ab
	자녀의 수	없 음	85.96	7.68***	a
		1 명	80.84		b
		2 명	78.76		b
		3명이상	79.72		b
	어머니의 취업 경험 유무	취업경험 없는 집단	79.48	-2.98**	
		취업경험 있는 집단	83.02		
아버지의 교육수준	국졸 이하	77.90	7.77***	a	
	중졸, 고졸	80.30		a	
	대졸 이상	83.72		b	
남편의 수입	30만원 이하	97.55	16.87***	a	
	31-70만원	81.42		b	
	71-100만원	80.96		b	
	101만원 이상	76.17		c	
社 會 的 關 係	사회적모임에 대한 참여정도	낮은 집단	77.40	12.62***	a
		중간 집단	80.97		b
		높은 집단	85.72		c
의미있는 타자들의 취업에 대한 태도	찬성하는 집단	86.03	49.19***	a	
	중간인 집단	77.99		b	
	반대하는 집단	72.55		c	
남편과의 가사노동 공유정도	공유형	84.76	11.85***	a	
	중간형	79.71		b	
	분리형	77.05		b	
變 數	부부간 수입의 차이	남편보다 7만원이상 더 버는 집단	91.06	55.60***	a
		중간인 집단	81.28		b
		남편보다 57만원이상 더 버는 집단	71.50		c
職 務 關 係 變 數	근무시간	7시간 이하	77.81	4.04*	a
		8-9시간	80.73		b
		10시간 이상	82.73		b

***p<.001

**p<.01

*p<.05

변수 중에서는 오직 수입만이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며, 이처럼 유독 수입이라는 변수가 부각된 것으로 보아 경제의 인플레이성이 커지고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오늘날의 추세는 이와 같은 수입 변수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세째, 發達論的 觀點에서 볼 때, 결혼 초기에 해당하고, 자녀가 없는 취업주부가 높은 扶養者役割意識을 보인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취업주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扶養者役割 체계를 수립하려면 결혼 상태가 중반기, 후반기로 옮겨가는 동안 부부 간에 역할에 대한 논의가 수시로 필요하며, 출산율의 감소와 적절한 자녀양육 대책 제도가 뒷받침되어 준다면 앞으로 취업주부가 扶養者役割을 능동적으로 내면화하는 경향이 보다 고무되리라 본다.

네째, 象徵的相互作用論的 觀點에서 볼 때, 사회화 관련변수로서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경험이 있는 母의 딸인 경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출신지역이 도시인 경우, 사회적 모임에 대한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과 학교, 또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회화 기능이 개인의 역할체계 정립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을 보여준다. 한편, 의미있는 타자들이 주부취업에 대해 찬성할수록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내 역할 체계가 구성원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비로소 구축되는 것임을 의미하고, 새로운 역할 창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 정립 과정이 마찰과

갈등을 겪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친밀한 사람들로부터의 지지를 필요로 함을 보여준다. 끝으로, 취업에 부여하는 의미 즉, 취업동기가 개인적 이유가 아니라 경제적 이유일 수록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은 높았는데, 이는 부양자 역할의 개념 자체가 개인의 직업적 역할과는 그 맥이 다른, 가족구조 전체 속에서야 비로소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섯째, 體系論的 觀點에 따르자면, 취업주부가 가지고 있는 가족역할과 직업역할 간의 경계가 모호할 경우, 혹은, 직업역할이 가족역할에 의해 많은 침해를 받게 될 경우 扶養者로서의 역할 인지는 어려울 것임을 예측하게 해준다. 이 觀點에서 선택된 變數들 중 근무시간의 융통성 및 근무장소는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반면, 근무시간은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에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각 變數 및 理論的 觀點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앞에서 선정된 모든 변수를 포함시켜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6개의 가장 영향력 있는 독립변수를 도출하였는데, 도출된 변수명과 그 영향력은 다음의 표 3에 나타나 있다.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수는 의미있는 타자들의 취업에 대한 태도였고 이 변수가 전체 종속변수 변량의 약 29%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편과의 수입의 차이가 7.5% 가량의 설명력을, 성역할특성, 사회적모임에 대한 참여 정도, 출신지역, 남편과의 가사노동 공유 정도의 순서로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이 설명된다. 그런데, 이 6가지의 변수들이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이라는 변수의 총 변량 중 약 43

표 3.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최종 회귀분석 결과

순 위	변 수	베 타	R ² 변화
1	의미있는 타자들의 취업에 대한 태도	-.412	.288
2	부부간 수입의 차이	-.231	.074
3	성역할 특성	.135	.030
4	사회적 모임에 대한 참여 정도	.100	.015
5	출신지역	.096	.011
6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의 공유 정도	.095	.007

R² = .433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의 변량 및 그 변량을 설명하는 관련변수를 밝히는 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에 비해 작으나마 값진 의의를 지니는 발견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理論的 觀點別 相對的 影響力을 살펴보면, 변수별 설명력 순서로 첫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변수들인 의미있는 타자들의 취업제 대한 태도, 사회적 모임에 대한 참여 정도, 출신지역 등이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하였듯이 象徵的 相互作用論的 觀點의 변수에 속한다. 그리고, 설명력 순서로 두번째 변수인 남편과의 수입의 차이는 資源論的 觀點에서 도출된 변수이며, 세번째와 여섯번째인 성역할특성과 남편과의 가사노동 공유정도는 構造機能論的 觀點의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서구의 여성 취업관련 선행연구에서 강력하게 대두되는 資源論的 觀點보다는 오히려 가족 내외의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象徵的 相互作用論的 觀點이 우리나라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을 설명하는 데 가장 유용한 관점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겠다.

V. 論 議

산업화 이후 가정과 외부 세계와의 분리에 따라 부부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의 책임을 할당받아 여성에게는 가정관리자로서의 역할이, 그리고 남성에게는 가족부양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의 그것에 육박해 감에 따라 부부 간의 성별 역할분리 체계에 동요가 생기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의 실제적 부양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취업주부들은 스스로를 남편과 동등한 부양자로 보기 보다는 보조적이고 이차적인 부양자로 인지하고 있다. 자신의 직업생활과 가정이라는 두 세계를 연결시켜 줄 튼튼한 다리로서의 부양자역할에 대한 승인을 스스로에게서나 타인에게서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는 현상은 취업주부에게 역할갈등의 소지를 제공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이 그들의 실제 부양역할 수행에 비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扶養者役割意識의 변량이 어떠한 理論的 觀點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변수들을 理論的 觀點別로 집약화하여 그 설명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변수들을 확인하였으며, 그 중 설명력이 가장 큰 변수는 의미있는 타자들의 주부 취업에 대한 지지 정도였고, 이론적 관점으로는 象徵的 相互作用論的 觀點이 가장 큰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로써 남성 부양자 對 여성 가정관리자의 역할체계로부터 벗어나 가족 扶養者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획득해 나가고 창조해 나가는 데 있어 일차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의미있는 타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백히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남편의 취업에 대한 찬반 정도는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을 가장 많이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 간 역할협상의 중요성을 실감케 한다. 아울러, 理論的 接近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 추세로 미루어 볼 때, 여성의 취업에 따른 가족 내 역할재편성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기존의 서구식 交換論的 視覺에서 벗어나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象徵的 相互作用論的 觀點이 한국의 가족 역할 연구에 보다 유용한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다음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의도 표집되었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저학력층과 노령층을 골고루 표집하여 보다 보편적인 扶養者役割意識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扶養者役割意識 척도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직접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의 계속적인 검증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부 간 역할구조 내에 위치하고 있는扶

養者役割意識을 취업주부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함으로써 남편과의 역할 협상이 충분히 파악되지 못하였다. 남성이 가족 扶養者라는 신념은 오히려 남편 쪽에서 더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선행연구(김효숙, 1988; 최외선, 류향기, 1985)의 주장과 관련하여 볼 때, 扶養者役割 체계는 부부를 함께 대상으로 할 때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發達論的 觀點의 변수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횡단적 연구를 지양하고 종단적 연구, 혹은, 종단적 연구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단기 종단적 연구 등이 후속 연구가들에 의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의미있는 타자의 주부 취업에 대한 지지 정도가 취업주부의 扶養者役割意識에 대해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의미있는 타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보다 정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어떤 타자가 어떤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가 차후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경제기획원(1987). 고용구조 특별조사 결과 보고.
- 2) 김영신(1991). 소비자문제의 유형별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김재은(1987).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한국문화연구원 한국문화총서 12.
- 4) 김효숙(1988). 도시 부부의 역할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노동부(1986). 직종별 임금 실태조사보고서.
- 6) _____(1990). 노동통계연감.
- 7) 옥선화(1980). 한국 도시 가족의 역할 구조 분석 (I). 성심여자대학교 논문집 11 : 77-91.
- 8) _____(1982). 한국 도시 가족의 역할 구조 분석 (II). 성심여자대학교 논문집 13 : 5-33.
- 9) _____(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0) 이 숙(1982). 한국 대학생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발달 및 자아 존중감과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19.
- 11) 임정빈·정혜정(1986).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 : 71-93.
- 12) 정옥분(1986). 한미 양국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존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2) : 123-137
- 13) 조혜정(1988).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 문학과 지성사.
- 14) 최외선·류향기(1985). 가족의 권력 구조와 부부 역할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인문연구* 10 : 681-711.
- 15) 최재석(1971). 한국 도시 가족의 역할구조. *아세아연구* 14-1 : 16-31.
- 16) 최재현(1989). 현대사회학 이론. 서울 : 형설 출판사.
- 17) 한남제(1972). 직업부부의 가족 문제. *경북대학교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16 : 93-102.
- 18) Bem, S.L.(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 155-162.
- 19) Bird, G.W., Bird, G.A.(1984). Determinants of Family Task Shar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 345-355.
- 20) Blood, R.D. & Wolfe, D.M.(1960). Husbands and wives : The dynamics of married living. N.Y. : Free Press.
- 21) Boss, P.G.(1980). Normative Family Stress. *Family Relation* 29 : 445-450.
- 22) Burr, W.R., Leigh, G.K. & Constantine, J.(1979). Symbolic-Interaction and the Family, in Burr, W. R., et al.(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II, N.Y. : Free Press.
- 23) Ericksen, J.A., Yancey, W.L. & Ericksen, E.P. (1979). The division of family ro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 301-313.
- 24) Haas, L.(1981). Domestic role sharing in swed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 957-965.
- 25) Hanson, S.L.(1983). A. Family Life-cycle Approach to the Socioeconomic Attainment of Working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 323-337.
- 26) Hartley, H.M.(1960). Children's concepts of male and female roles. *Merrillpalmer Quarterly* 6 : 81-83.
- 27) Hoffman, L.W.(1974). Effects on child, in Hoffman, L.W., Mye, F.I.(eds.). *Working Mothers*, San

- Francisco : Jossey-Bass.
- 28) Hood, J.(1986). The provider role : its meaning and measure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 349-359.
- 29) Nickols, S.Y., Metzen, E.J.(1978). Household Time for Husband and Wif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 : 85-97.
- 30) Nye, F.I.(1979). Choice, Exchange and the Family, in Burr, W.R., et al.(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II, N.Y. : Free Press.
- 31) Models, S.(1981). Housework by husbands. *Journal of Family Issue* 2 : 225-237.
- 32) Oppenheimer, V.K.(1977). The sociology of women's economic role in the famil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 387-406.
- 33) Perrucci, C., Potter, H. & Rhods, D.(1978). Determinants of male family-role performan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 : 53-66.
- 34) Pleck, J.H.(1977). The work-family role system, pp8-19. in Voydanoff, P.(ed.), *Work and Family*, Mayfield Publishing Company.
- 35) Pleck, J.H., Stains, G.L. & Lang, L.(1980). Conflicts between Work and Family. *Monthly Labor Review*, 103.
- 36) Rallings, E.M. & Nye, F.I.(1979). Wife-mother Employment, Family, and Society in Burr, W.R., et al.(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I, N.Y. : Free Press.
- 37) Rosenfelds, S.(1978). Women's intergenerational Occupational Mobi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3 : 36-46.
- 38) Ross, C.E.(1987).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Social Forces* 65 : 816-833.
- 39) Skolnick, A.S.(1987). *The Intimate Environment*. Boston : Little, Brown.
- 40) Smith-Lovin, L., Tickamyer, A.R.(1978). Non Recursive model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Fertility behavior and Sex-role attitud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3 : 541-557.
- 41) Spitze, G.(1988). Women's Employment and Family Relations : A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 595-617/
- 42) Stafford, R., Backman, E.(1977). The division of labor among Cohabiting and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 43-51.
- 43) Statham, A., Larrick, A.S.(1986). Changing family roles : Implications for married women's earnings. *Family Perspective* 20 : 13-25.
- 44) Thompson, L., Walker, A.J.(1989). Gender i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 845-872.
- 45) Yogev, S.(1981). Do professional women have egalitarian marital relationships ?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 865-869.